



건강체크

우린 아직 젊고 열정과 건강이 있기에 '올드'(YOLD)

젊은 노인(Young Old)

오늘의 노인은 어제의 노인과 다르다. '올드(YOLD)'라 불리는 새로운 시니어 세대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다른 세대보다 인구도 많다.

노인을 위한 세상은 온다

올드(YOLD)는 '젊은 노인(Young Old)'이라는 뜻으로 대략 1946~1964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를 말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펴낸 '2020년 세계경제대전망'에서 '올드'세대가 도래했다고 소개한 이후 국제적으로 공용하는 단어가 됐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올드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더 건강하고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그

숫자도 많다. 세계는 지금 이러한 노년층이 새로운 경제부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가족을 우선으로 삼고 욕망을 가두고 살았지만, 이제는 운동과 취미활동 등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다.

경희대 고령친화융합연구센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실버 이코노미 시장 규모는 2012년 27조 원에서 2020년 72조 원으로 뛰었고 2030년에는 168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활동에 적극적인 세대

세계적으로 올드는 다른 세대보다 경제력이 높다. 우리나라도 통계청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살펴보면 50대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이 뒤를 이었다.

그렇지만 올드를 단순히 경제적

여유를 즐기는 세대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올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특징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60대 이상 취업자가 2017년에 비해 136만 7,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60대는 청년이었던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평균 29%대 취업률을 보이며 전 연령대에서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두고 '사상 최초 자기 부양능력을 보유한 신인류 출현'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2030년 국내 인구 3분의 1이 60대 이상

저출산·고령화는 세계적 현상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경제활동 인구의 급감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경기 부양

책을 위해 연령기준 재정립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건강한 시니어 세대의 경제활동 의지가 뚜렷하고, 고령자층이 경제활동 인구에 재편입되면 국가와 청년이 짊어진 부담 부담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UN)은 2015년 생애연령 기준을 재정립했다. 18~65세를 청년, 66~79세를 중년, 80~99세를 노인,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으로 구분했다.

일본노년학회도 2017년, 65~74세를 중고령자, 75~89세를 고령자, 90세 이상을 초고령자로 기준연령을 높여 일본정부에 제안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로 정책별 대상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갈무리됐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3

분의 1(33.7%)이 60세 이상이 된다. 사회 시스템 미비로 일자리를 원하는 건강한 올드세대를 '노인'으로 강제하고, 경제인구 바깥으로 쫓아 버리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더불어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mo.or.kr)'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지역구(시군구)의 노인일자리, 일자리유형, 일자리 참여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형

재능나눔활동: 학습지도, 문화예술 공연 등
공익활동: 노노케어, 학교급식 지

원봉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 봉사

□사회서비스형

보육시설 등 돌봄시설 지원, 장애인·노인시설 지원, 공공행정 업무 지원, 시니어취업상담 지원 등

□민간형

시장형: 시니어카페, 식품제조, 아 파트 택배 등

□취업알선형: 경비, 청소, 가사도우미, 시험감독관, 주차관리 등

□시니어인턴십

기존 노인고용직종(경비, 청소,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등을 제외한 직종(물류 관리, 고객 상담 등))

□고령자친화기업

노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 다수의 노인을 고용해 운영할 기업 지원(직종 제한 없음)

/백아를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통계청)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고향사랑기부제' 국가 균형 발전 마중물 되길



김형애 /장흥군청 재무과장

를 거듭한 끝에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올해 9월 13일 정부가 동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개인은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전달 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기부금은 기금 설치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장흥군은 올해 11월 11일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내년 첫 걸음을 떼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장흥군은 10개 읍면마다 고향사랑 기부제 플래카드를 걸고 유튜브, 블로그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홍보전에 돌입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지역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모

니터 영상 홍보, 고속버스 광고, 읍면 현장 설명회 등 홍보의 범위도 넓혀 가고 있다.

비슷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웃 나라 일본에서 2008년 시행 첫해 865억 원이었던 기부금이 2020년 7조 원 이상으로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첫술에 배 부를 수는 없었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사회에 잘 뿌리 내리길 기대한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더욱 행복해지길 바란다.

겨울철 특히 위험한 뇌졸중 주의해야



장종희

/여수소방서 여성119안전센터

뇌졸중이란 뇌혈관 질환 중 겨울철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뇌졸중이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정상적인 혈류공급이 되지 않아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을 의미하고 흔히 '중풍'이라고 알려져 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심하면 식물인간 또는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병이다. 골든타임(약 4시간)을 놓치면 치명적인 후유증이 발생하므로 알고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뇌졸중의 종류에는 혈관이 막혀 생기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뇌출혈로 나뉘고, 가장 큰 원인은 혈관이 좁아져 혈류가 줄어드는 동맥경화이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고지혈증 및 뇌졸중 과거력도 위험인자로 꼽힌다. 또한 흡연, 과음, 비만, 운동 부족도 뇌졸중을 일으키는 위험한 생활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은 다음과 같다.

▶몸이나 얼굴 한쪽에 마비가 왔다 가 풀림. ▶갑자기 둔해짐. ▶말이 어

눌해지거나 갑자기 한쪽 시력이(시야가) 떨어짐. ▶특별한 원인 없이 심한 두통이나 어지러움.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짐 등이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지체없이 가까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119에 신고하여 현재 증상과 발생한 시간 등을 알려주면 최대한 빠른 이송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시간이 갈수록 비가역적인 손상을 야기하는 혈관질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인만큼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다.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제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장실 (062) 363-0027 편집국장 (062) 363-8800. 광고국 (062) 363-0005 정·경 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취재본부 (062) 943-0140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만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독자 의견 •TEL : (062) 363-8800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Table with columns: 지국안내, 오치, 지사안내. Includes phone numbers for various locations like Chungcheong, Jeonbuk, Jeollanam, Jeollabuk, Gyeonggi, Seoul, etc.